

'황후의 품격', 막장임에도 자체 최고 질주 이유



SBS 수목극 '황후의 품격'이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쾌속질주 중이다. 13일 방송된 16회분에서 14%(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를 찍어 동 시간대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순옥 작가의 차기작으로 주목받았던 '황후의 품격'은 첫 회부터 실망시키지 않았다. 살인과 부적절한 남녀 관계로 혼란을 불러왔고 앞으로 벌어질 사건들에 대한 떡밥을 던져주며 호기심을 자극했다. 말도 안 되는 막장이라고 욕하지만 본방시수를 하게끔 만드는 묘한 매력으로 tvN 수목극 '남자친구'를 앞질렀다. 김순옥 작가의 드라마에서 복수

복수·자극적 요소·반전 등 상승효과 가져와

요소는 빠지지 않는다. 드라마 '내의 유혹' '왔다! 장보리' '언니는 살아있다' 등에도 복수는 이야기 전체의 큰 흐름이었다. '내의 유혹'에서 장서희가 얼굴에 점을 찍고 나타나 복수했다면, '황후의 품격'에선 태항호(나왕식)가 최진혁(나왕식·천우빈)으로 변했다. 어머니 죽 음과 얽힌 신성록(이혁)·이엘리아(민유리)에 복수하기 위해 이를 갈았다. 살을 빼고 날렵해진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확 달라진 모습이 동일 인물로 보기 어려울 정도. 페이스오프 급의 변신이었다. 말도 안 되는 설정이라고 하면서도 황실경호원 시험에 합격해 복수에 한 발짝 더 다가간 최진혁의 모습에 함께 울고 웃게 만들었다.

자극적인 요소의 잔치다. '황후의 품격'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김순옥 작가의 그 어떤 작품보다 선정성이

강하다. 신성록과 이엘리아의 끈적한 관계가 첫 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느 지상파 미니시리즈에서 볼 수 없었던 15세 이상 관람가의 과격적인 베드신 그리고 잔혹한 살인 장면이 담겼다.

중간중간 신선하면서도 황당한 반응을 일으키는 포인트도 있다. 신성록과 이엘리아의 관계를 눈치챈 박원숙(태왕대후 조씨)이 분노해 그녀를 던져 거울에 쫓는 장면이나 장나라(오씨)가 남편의 불륜을 목격하고 눈물을 떨궈고 동시에 팔자가 끊어지는 장면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시청자들 사이에서 '별산 눈물' '비너 던지기 기술'로 불리며 우스꽝스럽다. 신박하다는 반응을 동시에 불러왔다. 또 드라마 도중 실사가 웹툰으로 등장. 원작이 없음에도 원작이 있는지 의문을 자아냈다. 방송 이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관심을 받았다.

반전이 빠지지 않는다.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중간중간 허를 찌르는 요소가 있는데, 12일 방송분이 그랬다. 장나라와 한배를 탔다고 생각한 최진혁이 알고 보니 신성록과 손을 잡고 장나라와 내연관계라고 거짓 주장을 한 것. 뒤뚱수를 치게 만드는 엔딩으로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이것이 김순옥표 막장 드라마 판'과 함께 시청률 상승효과를 특독히 가져왔다.

SBS 측 관계자는 "'황후의 품격'엔 웹툰과 정통이 결합된 새로운 장르가 전하는 신선함이 있다. 장나라와 신은경, 박원숙의 노련한 연기를 바탕으로 웹툰과 정통 드라마를 넘나들고 있다. 배우들의 코믹하면서도 다소 과장된 표정 연기가 웹툰을 연상시키며 젊은 층에 어필하고 있고, 질투와 권력, 사랑, 권선징악 등은 정통 드라마 스토리로 중장년층을 포섭한다"면서 "몰아치는 빠른 전개가 흥미와 긴장감을 안겨주는 동시에 때에 맞는 불거리를 제공해 시청자들에게 오를 정도로 관심을 받았다."

위너, '밀리언즈'로 19일 컴백



위너가 마침내 완전체로 돌아온다.

위너는 오는 19일 신곡 새로운 싱글 '밀리언즈(MILLIONS)'를 발표하고 가요계에 전격 컴백한다.

'밀리언즈'는 모든 사람이 수백만 가지의 사랑받을 이유와 자격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곡으로 강승윤, 송민호, 이승훈이 작사·작곡에 참여해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곡. 타이틀과 함께 공개된 '밀리언즈'의 포스터는 푸른빛의 광활한 우주를 배경으로 수많은 별들 사이에서 보름달을 응시하고 있는 위너 네 멤버의 신비로운 분위기로 컴백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위너는 '아내'로 음원 차트는 물론, 음악방송 정상까지 올릴하며

가요계에 신드롬을 불러 일으킨 송민호의 정상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송민호의 '아내'는 대형 가수와 음원 강자들의 컴백 속에서도 굳건히 음원차트 1위를 지키며 팬위를 떨치고 있다. 또한 탄탄한 팬덤의 응원은 물론 대중의 열광적인 지지로 음악방송에서 총 5관왕에 등극했다.

송민호가 솔로로 불러 일으킨 열광적인 팬덤과 탄탄한 대중적 입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위너로 음악이 될 것이다. '밀리언즈'로 돌아온 위너, 기다리지 않을 수 없다.

특히 YG와 위너의 자신감은 위너에 대한 컴백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앞서 양현석 YG 대표 프로듀서는 위너의 컴백을 깜짝 발표하며 "느낌이 오는 싱글곡"이라고 '밀리언즈'를 소개했다. 또한 "위너와 이너서클에게 최고로 행복한 연말을 선물하고 싶다"고 밝혔다. 리더 강승윤 역시 "달콤하고 신나게 즐기기도 좋고, 설레는 마음으로 들으셔도 좋은 곡"이라며 "추운 연말을 따뜻하게 달구는 행복한 느낌의 곡"이라고 설명했다.

성공적인 첫 솔로 활동으로 위너의 컴백 꽃길에 빛이 나게 닦아 둔 송민호의 컴백 각오는 특별하다. 송민호는 16일 공개된 활동 비하인드 영상에서 '아내' 신드롬을 이룬 위너의 컴백에 기대를 당부했다. 송민호는 "앞으로 남은 솔로 활동도 무사히 멋있게 마치고, 이어서 위너 활동도 아주 화려하게 컴백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달라"고 밝혔다.

위너의 컴백을 기다려야 하는데에는 '밀리언즈'의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위너를 기대하게 하는 것은 위너의 음악이 가진 힘 그 자체다. 앞서 위너는 4인조로 처음 발표한 '리얼리 리얼리' 그리고 이어지는 '에브리데이'로 위너의 음악 세계를 공고히했다. 타이틀로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아일랜드 (ISLAND)', '에어(AIR)' 등도 음악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힙합 트랩, 어쿠스틱 등 다양한 장르가 만나 탄생한 위너표 청량미와 사랑, 이별, 청춘, 도전 등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진솔하게 담아낸 가사는 위너만의 독보적 색채를 완성했다.

19일 발표되는 '밀리언즈' 역시 열광적인 팬덤과 탄탄한 대중적 입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위너로 음악이 될 것이다. '밀리언즈'로 돌아온 위너, 기다리지 않을 수 없다.

2018 스크린 3번째 삼파전 어떻게 될까



2018년을 마무리하는 3번째 삼파전이 스크린을 달구고 있다. 희비가 엇갈렸던 지난 극장가 삼파전에 이어 이번엔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까.

비수기와 성수기를 가리지 않고 국적을 가리지 않는 영화들이 쏟아졌던 올해, 관객들이 대거 몰리는 성수기에는 어김없이 100억대 대작들이 한꺼번에 개봉하는 전례없이 펼쳐졌다.

관객의 흥행에 따라 극장가의 판세도 이리저리 기울었다.

최대 성수기를 찍히는 여름에는 '신과함께'의 속편 '신과함께:인과연'을 필두로 한 대작들의 경쟁이 펼쳐졌다. 무려 141만 관객을 모은 1편 '신과함께:죄와 벌'에 이은 '신과함께:인과연'이 무려 122만 관객을 모으며 강력한 흥행파워를 과시했다. 하지만 남과 북의 이야기를 묵직하게 다룬 '공작' 또한 49만 명을 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다만 또 다른 100억 대작 '인랑'이 100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추석 시즌 발발한 2번째 삼파전은 웃는 자보다 우는 자들이 많았다. 여름에 비해 규모가 작은 시장이지만 제작비 100억대 대작들이 추

석 연휴를 맞아 한꺼번에 몰렸던 그때, 특히 '안시성' '명량' '열상' 등 하루 3편의 영화가 같이 맞붙는 출혈 경쟁을 벌이면서 어느 하나 기대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 영화계를 긴장시켰다. 결과적으로 최종 관객수 544만 명을 기록한 '안시성'만이 VOD, 해외판매 수입을 더해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었다.

그러시잖아. 크리스마스에서 연말연시로 이어지는 12월의 극장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여름 못잖은 관객몰이가 가능한 큰 시장이지만, 추석 시즌의 출혈경쟁이 재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가오는 19일엔 '내부자들' 우민호 감독과 송강호가 만난 '미약왕', '괴수스캔드' 씨니의 강형철 감독과 도경수가 모친 '스윙키즈'가 한판 한시 맞붙고 한 주 뒤엔 '너 테러 라이브' 김병우 감독과 한정우가 다시 손잡은 'PMC:더 벵커'가 개봉한다.

2018년의 3번째 성수기 삼파전인 셈이다. 세 영화의 장르와 매력,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은 기대를 높이는 요소다.

'미약왕'의 경우 1970년대를 풍미한 전설적 마약왕 이두삼의 이야

기를 강렬하고도 처연하게 그려냈다. 혼자서도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송강호의 열연, 그에 더해진 조정석 배우나 김태형 김소진 이희준 조우진 등 연기파 배우군단이 저마다 한 뼛을 한다. 비탄한 시대의 기운까지 느껴지는 이 영화, 청봉이다.

한국전쟁 당시 거제도의 포로수용소에서 탄압한 오합지졸 맨스단 스윙키즈의 가슴 뛰는 이야기 '스윙키즈'는 강형철 감독의 장점을 그대로 품은 이야기다. 귀에 코 박히는 음악, 복고풍의 흥겨운 분위기를 신선한 배우들과 담아냈다. 전연령대나 다름없는 12세 관람가를 받았다.

'PMC:더 벵커'는 거액을 제시받고 DMZ 지하벵커에 들어간 용병 리더가 맞닥뜨린 뜻밖의 이야기를 그린 액션물이다. 더 테러:라이브에 이어 한정된 공간, 제한된 시간,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닥뜨린 한정우가 이선균과 함께 극을 이끌어간다. 15세 관람가.

오랜 기획과 촬영을 거쳐 이제야 관객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세 영화는 과연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까. 믿음직한 감독-배우들의 조합을 앞세운 볼 만한 영화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건 관객들에게 축복과 같은 일이다.

대작 영화가 덩치에 걸맞은 관객을 맞이하려면 성수기를 노리는 게 당연하다고는 하지만 하필 왜 이시기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나 의문과 원망이 들기도 한다.

올해 연말엔 세 편의 대작은 물론 '이쿠이벤', '발발' 같은 해외 기대작까지 가세했다. 하지만 한정된 시즌에 벌이는 치열한 경쟁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쉽게 예상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서로 매력과 포인트로 다른 타깃층을 조준한 세 작품이 저마다 합당한 결과를 받아들이길 바란다. 세 영화 자체만큼이나 흥미로운 연말 극장가의 관련 포인트다.

오늘의 운세 2018년 12월 17일 월요일 (음력 11월 11일)



▶**소식** 어두운 밤에 불빛이 필요하듯 내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2, 10, 12월생은 동쪽에서 사람을 만나면 미래를 설계하고, 용기 있게 행하라. 7, 9, 11월생은 관심 없던 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내일을 위해 좋겠다.



▶**소식** 햇빛과 온기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천둥과 번개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내 실속만 차리다가는 계 밧에 걸려 넘어지는 격. 7, 9, 11월생은 융통성 있게 처신하라. 3, 8, 12월생 피곤이 누적했으니 휴식하라.



▶**소식** 친구와 회포를 푸는 것은 좋으나 언행을 조심하라.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구설에 오를 수 있다. 2, 7, 8월생은 서로에게 도움 줄 듯. 1, 9, 11월생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 벨이 울릴 것이다.



▶**소식**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헤어짐을 가슴 아파하지 말라. 헤어짐은 새로운 만남을 예고하는 법. 금전을 받기는 해도 빌려주지는 말라. 속을 태우겠다. 4, 5, 6월생은 오후에 유혹이 있으니 동쪽 사람과 전화 통화를 삼가라.



▶**소식** 오늘은 베푸는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알라. 보이지 않는 베품이 가장 큰 그릇이다. 1, 9, 11월생은 당신에게 도움을 주는 이가 나타날 것이다. 오늘만큼은 금기하라.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좋을 듯.



▶**소식** 지붕에 오르려면 사다리가 필요하다. 무조건 오르려고 방향하지 말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라. 소, 용띠가 큰 힘을 줄 것이다. 4, 5, 7월생 심신이 불안정하겠으니 산책이나 독서, 음악 감상하며 하루를 보냄이 어떨지. 남, 서쪽이 길.



▶**소식** 2, 11, 12월생 동, 북쪽에서 반가운 소식이 오겠다. 상대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은 내 마음이다. 진실하게 대하라. 4, 7, 9월생 미혼 여성은 남, 서쪽으로 등산이나 여행을 떠나면 배필을 만날 수. 1, 9, 11월생 직장인은 길.



▶**소식** 욕심과 열정이 넘쳐 흐르나 침묵의 기운도 강하다. 조화가 필요할 때다. 한 가지 일에만 충실하라. 오늘은 손에 아무것도 들지 말라. 잃어버릴 운이다. 1, 9, 11월생은 1, 2, 9월생은 북, 서쪽 일에서 좋은 결과가 있겠다. 미혼인 경우 청혼을 받을 운.



▶**소식** 늦가을에 서리가 내리면 풀잎은 시들지만, 감은 더 맛있는 홍시로 변하는 법. 승진을 준비하는 사람은 홍시와 같이 분발하고, 노력하라. 2, 8, 11월생 친구를 둔 사람은 우정이 한층 두터워지겠다. 요식업, 여업, 의료업 종사자는 길.



▶**소식** 쓰는 법만 배우지 말고, 저축하는 법도 배우라. 쓸 때는 종횡이나 목돈이 필요할 때 후회한다. 1, 2, 7, 12월생은 남쪽은 일만 하지 말고 내 것도 챙기라. 사랑하는 이에게 전화나 문자보다 편지 한 장의 추억을 선물하라.



▶**소식** 총명한 지혜로써 거래처를 대하라. 부흥하고 발전할 행운이 트인다. 모두 내 능력 덕임을 알고 용기 있게 추진하라. 4, 5, 6월생은 검은색을 피하라. 가족과 외식하는 것도 좋을 듯. 늦은 시간 외출은 금물.



▶**소식** 분주하지만 할 뿐 소득이 없다. 신중을 기해 일 처리하라. 분수를 지킴이 좋다. 1, 9, 11월생은 권위 의식을 버리고, 과욕이 금물임을 알 때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다. 1, 2, 9월생은 북, 서쪽 일에서 좋은 결과가 있겠다. 미혼인 경우 청혼을 받을 운.